

성령님 - 나의 마음 받으라

작성일 : 2009. 12. 11 (금)

작성자 : 김은진 (대구스타교회, 캠퍼스, 치어)

[천국 성령운동 때 성모마리아에 대한 계시 글을 본 후

성령님을 못 알아 드린 것과 성령님께 사랑을 고백 하던 중

받은 말씀입니다.]

어미가 그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한 생기듯,
너희 한명 한명 영원한 지옥에 가 버리면
내 마음도 한에 한을 곱절이나 더한 것 보다 더
터져 버릴 것 같단다.

그러니 절대 지옥 가지 말거라. 알았지?

나의 심정 너희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원하노라.

사랑하고, 사랑 한단다.

나의 모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너희의 천모
성령이.

* 성령님 말씀 *

나의 딸아,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.

나는 너의 천모 성령이니라.

나의 사랑 알고 나에게 모든 사랑의 고백 해주니

내 마음의 감동이 너무나 물밀듯 휘감는구나!

너무나 벅차오르는구나! 그래! 나와 하나 되자!

내가 늘 너희 가운데 감동 감화로 역사 할 터이니,

너희는 나에게 더욱 간구하라.

내가 가진 모든 사랑 다 너희에게 부어 줄 테니

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나에게 애원할 지어다!

사랑하고 사랑하라.

나의 마음 받아 서로를 보듬어 주고 안아 주어라.

더욱 더 함께 하자.

내 마음 안에 너희가 떠난 적 단 한 번도 없단다.

더욱 하나 되자. 내 마음, 내 심정 쏟아 줄 것이야.

더 간구하고 더 원하라.

너희가 원하는 만큼 더 주리라.

어미가 아이에게 밥을 챙겨 주듯이

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노
라.

그러나 그 모든 것 받는 것은

너희의 책임분담이란다.

그러나 나는 너희 한 사람도

모든 것을 못 받는 자 없길 원하노니

사모함으로 귀히 여김으로 나의 모든 것 받을지어
다.

함께 함이란,

옆에 없으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말한단다.

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, 알았지?

오늘 계기로 더욱 나에게 간구하는 우리 섭리사

모든 너희가 되길 원하노라.

너희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 응답 할 테니

늘 부르고 이야기 하라.